



KPCA소 2023
미래 패키징 기술
한눈에
03



Life

캐리어 보관해주고
전용 교통카드도
관광객 잡는다
니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독점 없애고 효율성 높인다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 품목 다양성, 식재료 가격차 등 고려 방안 등 식재료 안전 기준 강화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기존 1162개 산지 농가만 공급자로 참여하던 것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계약 산지의 미생산 품목이 적지 않고 이 부족분을 특정 수탁업체가 독점 공급하는 점, 산지별 공급가격 격차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이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시는 ▲산지 여건에 따른 품목 다양성 한계 ▲산지 미공급 품목 수탁기관 독점 공급 ▲식재료 가격 차이 ▲자치구별 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특히 시는 산지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미공급 품목을 수탁기관에서 독점 공급하는 체계를 문제라고 봤다. 작년 공공급식 공급액 279억원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산지 농가에서 어린이집에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다보니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더 큰 문제는 한 개 지자체가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사업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평균적으로 35% 전후고, 광역도까지 합치면 74%정도다"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 26%는 수탁업체 모범인에서 공급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또 시는 동일 품목인데도 산지가 달라 가격 차이가 나고, 자치구별로 9개 센터를 별도 운영하다 보니 센터 건립비, 인건비, 개별 물류비 등이 추가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적집합공급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공공급식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자치구별 가격 편차를 해소,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을 특정 산지의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기존 1162개 산지 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사업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 안전체계를 도입, 방사능과 잔류농약 같은 위해요소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추석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7% 할인

추가 발행 포함 총 4017억 규모 시간차 편성, 시스템 부하 최소화

서울시는 13~14일 7% 할인된 금액으로 2000억원 규모의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추석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총 2017억원 규모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을 20일(9개구)과 21일(9개구) 추가 발행한다. 할인율은 7%이며 종로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관악

구, 강동구는 해당 기간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시는 사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 주의 기간차를 두고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자치구별 발행 시간대도 다르게 편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앱에서 구매하면 된다.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자치구당 150만원이다.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의 한도는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자치구 성북사랑상품권을 30만원어치 구매했다면 자치구 성북사랑상품권은 2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행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물하기와 가맹점 찾기 기능이 제한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원스톱 예약' 시작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로 확장

경기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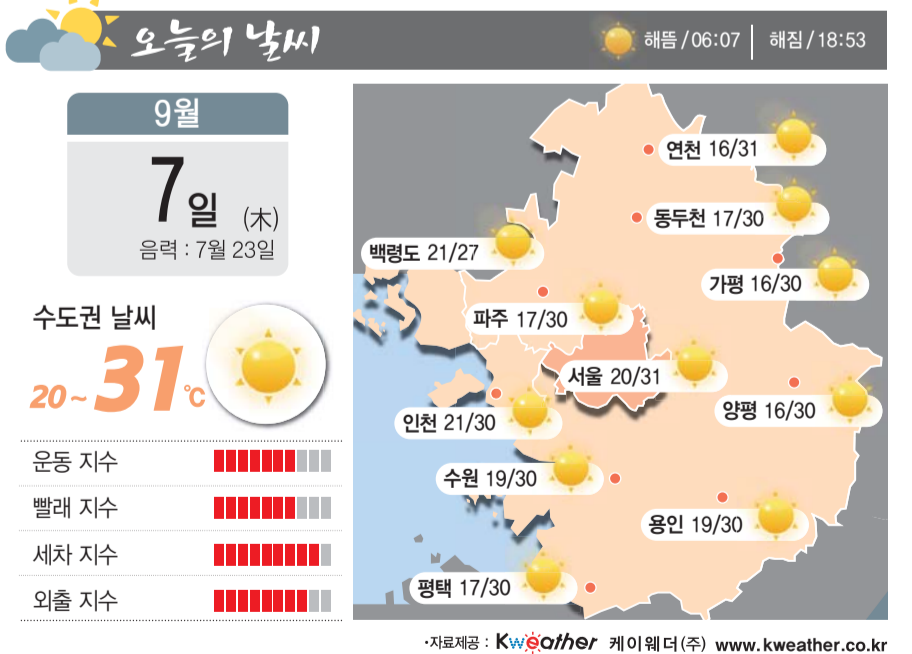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3천여 개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9월 모평, 킬러문항 없었지만 변별력 확보

국어·영어 다소 어렵고, 수학 비슷 선택과목 까다로운 문항 많아
6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이도문항)'은 배제되면서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이다. 문항 EBS 연계율은 국어 51.1%, 영어

53.3%이며, 수학과 탐구 등은 50%로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 영역은 지난 6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EBS 현장교사단은 "EBS 수능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

문, 언어와 매체는 선지에서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업계도 초고난도 '킬러문항'은 배제되고 직전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수학영역의 경우 평가단은 지난 6월 모의평가나 2023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됐다고 분석했지만, 입시업계는 수험생 체감 난도가 다소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 lhj@



▲KBO 신인드래프트 14일 개최...110명 프로 유니폼 입는다
▲KT 황재균 2000안타 대기록 지켰다 /사진 뉴스스

▲임종훈, 판전동에 석패...男탁구, 亞선수권 4강전 중에 완패
▲김소울, 한국 여자선수 4번째 UFC 입성...11월 데뷔



▲파워랭킹 1위·창단 기념 그래픽 메인...역시 '윌클' 손흥민
▲골프계, 박민비 지원 나서...KLPGA "IOC위원 도전 응원" /사진 뉴스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